

영자 덕분에... '친구랑 살빼기' 붐

최근 개그우먼 이영자씨의 지방흡입술 소식이 알려지면서 '살빼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각종 다이어트 프로그램과 성형외과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위 시선이 부끄러워 '나홀로' 이같은 프로그램을 찾던 이제까지의 분위기와는 달리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성형외과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다이어트 정보사이트인 다이어트 피아(dietpia.co.kr)는 최근 다이어트 이벤트로 '도보여행'을 살 빼기 행사로 진행 중이다. 경북 영리에서 출발, 강원도 동해와 속초를 거쳐 통일전망대에 이르는 구간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4박 15일 동안 걸어서 여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2차 프

다이어트사 '동해안 도보행사'에 커플 밀물 "주말 함께 오면 공짜" 스포츠클럽 회원 급증 지방흡입술 문의해도...강남 성형외과 특수

로그를 참가자는 지난 1차 때보다 2배 이상 늘었다"며 "특히 이번에는 친구와 함께 참가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서울 명동에 있는 세계 최대 헬스 클럽 체인인 캘리포니아 휘트니스센터에서는 아예 '친구와 함께 운동하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기존 회원이 주말에 친구를 데리고 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행사

를 벌이고 있다. 매주 보디폼프, 요가, 힙합댄스, 킥복싱 등 75개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이 휘트니스클럽에서는 이번 '친구와 함께' 행사 덕분에 회원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 성형외과가 가장 많이 불려 있다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특수를 누리는 지역이다. 압구정동에 위치한 김양수 성형외과에는

하루 보통 1~2건씩 오전 지방흡입술 관련 전화 문의가 하루 10건 이상으로 늘었고, 특히 친구와 같이 직접 상담을 하고 가는 사람도 예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이미 친구끼리 같이 상담하고 같이 지방흡입수술을 한 '친구 환자'도 있다"고 귀띔했다. 다이어트 제품 판매도 늘고 있다. 이영자씨가 사용한 얼골밴드 일명 '뽕김이'(정식명칭 세이퍼)를 판매하는 39소秉은 제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또 야후, 다음 등 각종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다이어트 팜북, AB슬라이다, 매직후프 등의 다이어트 관련 상품 판매가 호조를 띠고 있다. 정호석 hosu@sportstoday.co.kr

3회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

넥스트미디어홀딩스사는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에 대한 이해능력과 기초과학의 근간이 되는 수학에 대한 자질을 조기 발굴·평가하기 위해 '제3회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를 2001년 8월12일(일)에 개최합니다. 이번 상위 입상자에게는 성균관대학교 지원시 특별전형(2학기 수시모집) 지원자격이 부여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반영되며 응시자 전원에게는 개별 성적표 및 등급 인정서가 교부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사명: 2001년 후기 '제3회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
참가대상: 영어: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
수학: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고교 졸업생은 고등학교 3학년 부문에 참가 가능
시행일자: 2001년 8월12일(일)
원서교부 및 접수처: 2001년 6월11일(월)~23일(토)
전국하늘교육영재교육원(아래 연락처 참조)
구비서류: 응시지원서(소정양식), 사진 2장(반명함판 3×4cm)
결과발표: 2001년 9월3일(월)-고3 및 졸업생은 8월24일(금) 발표예정
시상내역: 각 부문별·학년별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학교단체상, 지도교사상 수여
참가문의: (주)하늘교육 02-761-32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번지 두레빌딩 (주)하늘교육
www.edusky.co.kr/www.edbs.co.kr

주최: next media holdings(주) · 성균관대학교
주관: 국민일보 · (주)하늘교육
후원: SBS · SAMSUNG 삼성전자

"고층아파트 살면 머리 큰아이 출산"

임산부 운동부족...10층 이상일때 평균 9mm 커

11일 말레이시아 팔라렐루르 인공 세계 국제주행 경기장에서 열린 태양열 자동차경주 첫날 경기.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일본 오사카 산업대학팀의 차량이 마치 바퀴벌레 같은 외양을 선보이고 있다. 팔라렐루르=AP/합



태양열 자동차 11일 말레이시아 팔라렐루르 인공 세계 국제주행 경기장에서 열린 태양열 자동차경주 첫날 경기.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일본 오사카 산업대학팀의 차량이 마치 바퀴벌레 같은 외양을 선보이고 있다. 팔라렐루르=AP/합

재벌가 2세 친자확인 소송서 패소

국내 재벌가 2세가 외국 유학 중 사귀 여자와의 사이에 낳은 딸의 친자 확인문제로 국내외에서 소송에 휘말렸다가 "친자가 맞다"는 판결을 받고 패소했다. 1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법원 1회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재벌가 2세 A씨가 미국 법원에 "C양(7)이 A씨의 친자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B씨가 C양을 A씨의 호적에 올리기 위해 국내에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이 미국 판결을 인정함에 따라 패소했다.

B씨는 지난 94년 미국의 가정법원에 C양이 A씨의 친자임을 확인해줄 것과 부양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미국 법원은 판결을 통해 친자임을 확인하되 부양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97년 귀국한 B씨가 이 판결을 근거로 C양을 A씨의 호적에 올리려고 서울지법에 집행정결 청구소송을 낸 지만 10월 승소하자 A씨측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민사20부는 지난 11월 10일 1심 판결을 기각했다.

여대생 40% "난 똥똥해"

62%는 "최근 다이어트 연세대 1학년 설문조사

"나는 비만이야. 살 좀 빼야 돼." '이만 하면 됐지 뭐.' 연세대 1학년 여대생 10명 중 4명은 자신을 비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운동으로 살을 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를 하는 학생도 10명 중 3~4명에 달했다. 이에 반해 남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체격에 대한 강박관념이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에서 이 학교 1학년 여학생 1,132명을 상대로 조사해 11일 발표한 '신입생의 건강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대생들의 35.5%인 402명이 자신의 체격을 '비만'이라고 응답했다. 비만체격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여학생 중 8.5%인 34명은 자신을 '매우 비만한 편'이라고 답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47.8%인 541명에 불과했다. 살을 빼기 위해 최근 1주일간 20분 이상 운동을 한 적이 있다는 여학생은 전체 응답자의 62.1%인 713명으로 조사됐고, 현재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 중에서도 74.7%가 "언젠가는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대답해 거의 모든 여학생들이 체격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남학생들은 1,859명 중 30.2%인 563명이 자신을 '비만체격'이라고 답했고, 13.8%인 257명이 최근 한달 동안 다이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응답. 여학생들보다 비만에 대한 강박관념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용직 flyhigh@sportstoday.co.kr

대학생 68% "난 개방적"

혼전 성관계에 긍정대담 대전·공주대 성의식 조사

대학생의 3분의 2가 혼전 성관계에 관대하며 4분의 1은 이미 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전대와 공주대가 11일 각각 발표한 대학생 성의식 실태조사 결과다. 대전대 사회복지학과 남미애 교수가 최근 재학생 192명(남 117명·여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7.7%의 학생이 사귀는 경우 혼전 성관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39.5%는 사귀지 않는 성관계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공공장소에서의 애정표현에 대해서는 77.6%가 '할 수 있다'고 응답했

며, 실제로 조사대상 학생 가운데 25.0%는 1회 이상 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공주대 학보사가 발표한 재학생 250명(남 118명·여 132명)을 상대로 한 성의식 실태 설문조사에서는 '혼전 순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6.8%가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답했으며, 10.8%는 '순결은 고정관념이므로 굳이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37.2%만이 '성 순결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5.2%의 학생은 '사랑하지 않아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답해 학생들의 성에 대한 개방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오상도 car@sportstoday.co.kr

기상청, 내주 인공강우 실험

최근 전국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인공강우' 실험이 빠르면 다음주 초 실시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11일 "당초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던 '인공강우 연구사업 계획'과 병행해 빠르면 다음주 초 항공기를 이용한 인공강우 실험을 남부지방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의 관계자는 "이번 인공강우 실험은 구름 속의 아주 작은 물방울을 모으는 '인공 구름씨'를 항공기를 이용해 뿌리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당 근로시간 한국인 최고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로퍼 스타치 월드와이드는 미국을 포함, 전 세계 31개국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주당 노동시간 조사결과 한국인이 평균 1주일당 55.1시간을 일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긴 시간 동안 일에 묶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뉴욕타임스지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지에 따르면 한국인 다음으로는 터키인 54.1시간, 아르헨티나인 53.5시간, 대만인 53.4시간 순이었다. 미국과 중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똑같이 42.4시간으로 세계 평균 44.6시간을 밑돌았다.

일기예보 2001년 6월 12일

인천	서울	춘천	강릉
19/27	20/28	16/30	17/26
대전	청주	대구	
19/30	19/29	19/30	
전주	광주	부산	
18/29	18/29	18/26	
제주			
19/25			

전국에서 곳에 따라 오후 한때 소나기(30%) 오는 날씨. 아침에 짙은 안개 끼는 곳 많았다. 아침 최저 15~19도, 낮 최고 25~30도.

지역 낮 밤 레저

서울 10 30 레저 (☹)

인천 10 30 레저 (☹)

춘천 10 30 레저 (☹)

강릉 10 30 레저 (☹)

청주 10 30 레저 (☹)

대전 10 30 레저 (☹)

전주 10 30 레저 (☹)

광주 10 20 레저 (☹)

대구 10 20 레저 (☹)

부산 10 20 레저 (☹)

제주 20 20 레저 (☹)

치킨·HOF의 혁명 - 국내최초 치킨덕 HOF 전문점

CHICKEN & DUCK

치킨 덕

一石二鳥

치킨메뉴 + 덕(오리)메뉴

"지역마다 너무 많은 치킨집 - 이제 진짜 차별화 할 때입니다."

맛! 기존후라이드 치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정말 뛰어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볍! 오리가 닭보다 비싸고 고급요리라는 것을 아시죠? 그러나 놀랍게도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메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건강! 오리가 건강보양식품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희식자리, 술안주, 자녀의 간식, 식사대용으로 영양만점의 건강요리입니다.

매뉴! 신선하고 새롭습니다. 세대간에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는 메뉴로 기존 치킨집 메뉴와는 완전 차별화 하였습니다.

독창! 치킨덕은 성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구요? 시중의 생오리로는 후라이드의 참 맛을 제대로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 동네마다 너무 많은 치킨집으로 경쟁이 심하시죠? 이제부터 맛, 가격, 영양에서 철저한 차별화로 지역 상권을 독점하십시오.

서양! 지금까지 오리로 후라이드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리전문기업 아니면 흉내낼 수 없는 노하우를 쌓아 국내최초로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자신있게 도전하십시오.

● 협력사: 주원농산주식회사

주원산오리 식품 제안사업본부

상업의 TEL (02) 2606-4651

경원지사: 055-282-6525, 경북지사: 080-583-5252